

## 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여름나기 현장 점검 “폭염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체계적 지원”

- 김문식 복지정책관, 서울역 쪽방촌 방문 -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026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 시행하고, 6월 3일에는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며, 폭염이 본격화되는 7~8월을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한다.

\* (주요내용) ▲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대응강화, ▲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및 적기 지원, ▲ 시설 안전 점검 등

\*\* (주요내용)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이날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우선 쪽방주민 맞춤형 여름철 지원 대책을 점검하였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건강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과 어려운 점 등을 청취하였다.

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 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확인하였다.

\* 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장치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기후 위기로 극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쪽방 주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더위를 피하고, 열대야를 견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역 쪽방촌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정재은 (044-202-3074)



**□ 개요**

- (일시) '26.6.5.(금) 10:00~11:00 (60분)
- (장소) 서울역 쪽방상담소(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 (참석) <sup>복지부</sup>복지정책관, <sup>서울시</sup>자활자원과장, <sup>용산구</sup>사회복지과장, 쪽방상담소장 등
- (주요내용)
  - 쪽방상담소 종사자 면담 및 격려
  - 쪽방주민 여름나기 현장 점검

**□ 방문 계획(안)**

시 간(소요)	내 용
10:00~10:05(5')	○ 도착 및 관계자 인사
10:05~10:40(35')	○ 쪽방상담소 소개 및 간담회
10:40~11:00(20')	○ 쪽방촌으로 이동 및 쪽방촌 환경 점검